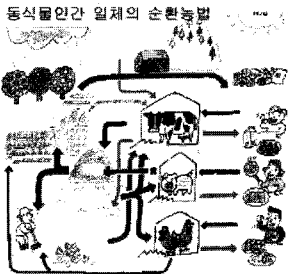


야마기시즘 농업의 특징

산안마을(야마기시즘사회 경향실현지) 이란?

경기 화성시 향남면에 위치한 산안농장은 별칭으로 「돈이 필요 없는 사이좋은 즐거운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산안마을은 1984년 몇 명의 야마기시즘 생활참획자로 시작하여, 모든 생활과 경영을 일체(一體)생활·일체(一體)경영·일체(一體)사회로서 해 나아가고 있다. 즉 생명력 넘치는 먹거리생산, 순환 속에서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발전해소해가는 제조방법, 상업이 필요 없는 유통기구 등이 이곳의 특징이다. 또한, 사회활동체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 상호번영(相互繁榮)하는 순환농법(循環農法)



자연계에서는 태양, 공기, 물과 흙, 거기에 생존하는 동식물의 순환 작용에 의하여 여러 일이 반복되어 상호(相互)번영하고 있습니다.

야마기시즘 농법은, 이 자연계의 공존(共存) 공활(共活) 공영(共營)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으로, 농경과 축산,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밀접한 관계를 맺은 "동식물 인간 일체"의 순환농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환농법의 원리는, 야마기시즘 실현지와 지역농업과의 사이에도 살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마기시즘 낙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유를 안정되게 제공한다고 하는 사회적 사명과 역할을 담당하면서, 축산에서 얻어지는 퇴비를 지역농업사회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풍성한 토양 만들기과 지역농업의 진흥을 꾀하고 있습니다.

퇴비가 뿌려진 지역농가의 논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력(地力)이 증강되어, 많은 쌀이 열리게 합니다. 가을 추수 뒤에는 야마기시의 젊은이가 대량의 볏짚을 소의 사료로서 거두어 갑니다. 볏짚은 커다란 롤 형태로 만들어서 장기보존에 가장 어울리는 사이레지(김치)로 합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목초수입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 볏짚이 양질이 조사료, 섬유질의 사료로 활용되어 우유 생산을 지탱하는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의 뱃속을 거친 볏짚은 퇴비가 되어 다시 지역의 논과 밭에 뿌려 집니다.

주변 농가의 농지가 비옥해 지고, 질과 양이 모두 훌륭한 벼농사가 전개되어, 지역 농업이 번영함에 따라 더욱더 축산을 하는 가치가 높아지며, 축산 그 자체도 번영합니다. 지역 농업과의 사이에서 상호 번영하는 순환농법이 멋지게 현현(顯現)되어 집니다.

▶ 적지적작(適地適作)

추운 지방에서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되면 무리가 생깁니다.



또, 사람 손이 없는 장소에서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을 기르게 되면 힘이 들고 성적도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작물이나 온도 습도 풍토 등의 점에서 가장 어울리는 토지(適地)가 있습니다. 이 적지 적작(適地適作)을 찾아가면서 재배함으로써 무리 없이, 낭비없이 즐거가면서 최고로 맛있는 것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적합한 토지에서, 적합한 작물을 기르는 데 전념하기 때문에 효율도 좋아지고, 성적도 올라 재미있어 집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하니깐 점점 더 성적이 오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곳에 전념하고 있으면, 혼자서 이것저것 다 기르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야채와 과일, 쌀 등이 각지에서 보내져 와서, 가장 맛있는 때에 모두와 함께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전국이 하나의 농장(어디를 가나 내 집이 있다)으로, 모두가 사이 좋게 마음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적기(適期)에 모인다

벼를 전문적으로 기르고 있는 농장에서는 모내기, 추수 때가 농번기라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키타현에 있는 오오가타 실현지는 평상시에는 83ha의 논을 6, 7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모내기와 추수 시기가 되면 전국의 실현지에서 교류 멤버가 다수 모입니다. 올해는 봄 모내기에 21명이 모여서 2주만에 다 심었습니다. 가을 추수는 총 30명이 벼 베기부터 시작하여 벧길 수확, 계분 퇴비의 살포, 플라우(쟁기)를 사용한 경운 등, 작업은 다음 해의 벼농사를 내다본 내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밖에 나가노현이다 실현지의 사과 수확, 미에 현 난키미하마 실현지의 감귤 수확 등, 매년 각 농장의 농번기에는 전국에서 다수의 교류멤버가 모입니다.



▲ 경기 화성시 향남면에 위치한 산안마을의 전경

내가 하고 있는 곳보다도 나의 주위와 전체가 번영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 기뻐서 항상 이런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내 집이 있다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매일입니다.

▶ 전국 하나의 농장

채소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선물하기 위해서 전국이 하나가 되어 야채 기르기에 힘써 왔습니다. 적지적작의 사고법으로 그 작물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땅, 그 땅에 가장 적합한 작물을 찾아가면서, 그곳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이 야채를 재배하면 좋겠다고 되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바로 시작하기도 하고, 이 야채는 이 사람이 하면 좋겠다고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정식, 수확과 적기작업에 모두가 달려오기도 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곳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사이좋은 관계,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내 농장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가족이 있습니다. ㉟

산안마을(<http://www.yamagishism.co.kr>)

